

<div>2026년 7월, 출범 확정</div> <div>제물포구·영종구</div> <div>서구·검단구</div>	<div>보 도 자 료</div> <div>배포일자 2024년 5월 2일(목) 총 5매</div>		<div>이제는 인천입니다</div> <div>2025 APEC INCHEON</div>
<div>담당 부서</div> <div>문화예술회관</div>	<div>담당자</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운영팀장 이희욱 ☎420-2710 담당자 정수산나 ☎420-2736 </div>		
<div>사진(이미지)</div>	<div>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div>	<div>참고자료</div> <div>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div>	
<div>보 도 시 점</div>	<div>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블랙홀, 크래쉬, 블랙신드롬... 전설의 밴드들과
인천 록 음악씬(SCENE)의 부활을 일으킨다.**
- 5.18~26 인천문화예술회관 <THE SCENE 2024> -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인천 록 음악 씬의 부활’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프로젝트 콘서트 <THE SCENE 2024> (이하 <더 씬>)을 개최한다.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주말, 인천 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에서 잊지 못할 진귀한 무대가 펼쳐진다.

‘왜냐하면 씬(Scene)이 있으니까’

1980~90년대 인천에는 음악적 가르침을 주는 선배들, 음악을 배울 공간, 함께 연주할 뮤지션, 기량을 뽐낼 공연장, 음악적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거기서 발전된 탄탄한 관객층, 즉 ‘록 음악 씬(SCENE)’이 존재했다. 밴드들은 음악 선배와 동료를 찾기 위해, 공연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공연장을 채워줄 관객들을 찾기 위해 다른 도시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화려했던 인천 음악 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 썬>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고민, 그리고 마음 한편에 접어두었던 추억을 담아 만든 무대이다. 록과 헤비메탈의 도시였던 인천을 회고하고 당시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그들과 현재 그 명맥을 잇고 있는 뮤지션들이 함께 만든다. ‘동인천’과 ‘관교동’(현재 행정구역상 ‘구월동’) 지하 연습실로 몰려들었던 긴 머리와 가죽자켓으로 대표되는 록 음악의 주인공들이 한 무대로 소환된다.

인천 록 음악 썬(Scene)의 흔적들을 소환하는 무대

5월 18일 첫 무대의 주인공은 올해로 결성 35주년을 맞는 헤비메탈 밴드 ‘블랙홀’과 여성 하드 록밴드 ‘화이트(White)’이다. 1985년 전 세계적 음악 행사였던 ‘Live Aid’의 한국 공연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시작한 ‘블랙홀’은 이름처럼 흡입력 있는 음악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또한 인천에서 결성되어 1994년 제1회 톱보이 록 콘테스트에서 ‘Foxy Baby’로 입상한 ‘화이트’가 30여 년 만에 무대에 올라 뜨겁고 화려한 변신을 보여준다.

19일에는 강렬한 스래쉬 메탈 밴드 ‘크래쉬’와 2007년 인천에서 결성된 ‘PNS’가 무대에 오른다. PNS는 ‘People, Nation, Society’(사람, 국가, 사회)의 약자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음악으로 응원하는 팀이다. 1994년에 데뷔해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크래쉬’는 보컬 안홍찬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에 게스트 참여하여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두 번째 주인 25일에는 1987년 결성된 밴드 ‘제로-지(Zero-G)’와 4인조 그런지록 밴드 ‘KOP’의 무대가 펼쳐진다. 보컬 김병삼의 익사이팅한 샤우팅과 다채로운 창법, 그리고 한국형 하드록과 헤비메탈의 화려함이 잘 녹아있는 제로-지(Zero-G)는 늘 뛰어난 연주로 팬들을 흥분시킨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KOP’는 묵직한 그런지록의 리바이벌이라고 평가받는 팀으로 2022년부터 활발한 라이브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살아있는 전설”들을 만날 수 있다. 1987년에 결성한 국내 헤비메탈 씬의 전설 ‘블랙신드롬’과 1980년대 인천의 록음악이 발돋움하던 태동기에 활약한 1세대 밴드 ‘아웃사이드즈’가 대미를 장식한다. 한국에 언더그라운드 씬이 태동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국내 락 씬을 앞장서 지켜온 두 팀의 지치지 않는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인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음악 씬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당시 무대를 꾸리고 객석을 채우던 이들의 열망과 에너지가 이 무대를 기획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매진 성원에 좌석 추가 배치, 전면 개방하여 야외에서도 즐기도록

티켓 오픈 이후 <더 씬>이 준비한 네 번의 공연은 대부분 매진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일부 좌석을 추가 배치하여 현장 판매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의 폴딩 도어를 전면 개방하여 인근을 지나는 모든 시민이

발코니와 야외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록 음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더 씬>은 전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인천문화예술회관 ☎032-420-2735

인천 록 음악 씬(Scene)의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 콘서트

<THE SCENE 2024>

- ☐ 일 시 : 2024년 5월 18일(토)~26일(일) 매주 토·일요일 18:00
-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 ☐ 관 랑 료 : 전석 1만원
- ☐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인천문화예술회관
- ☐ 문 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032-420-2735

참고자료

사진



<THE SCENE 2024> 대표 출연팀 - 블랙홀



〈THE SCENE 2024〉 대표 출연팀 - 크래쉬



〈THE SCENE 2024〉 대표 출연팀 - 블랙신드롬